



52년간 이어진 스승과 제자의 인생이야기



‘호랑이 선생님’
강성률 지음/작가와 비평/1만3천800원

광주교육대학교 강성률 윤리교육과 교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이어온 52년 동안의 사랑이야기 ‘호랑이 선생님’을 출간했다. 강 교수의 21번째 저서이자 5번째 장편소설이다.

이 책은 지나치게 말수가 적고 극도로

강성률 광주교대 교수 다섯 번째 장편소설 출간
“요즘에도 제자 눈물 닦아주는 선생님 많이 있어”

내성적인 주인공 민수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를 허용하지 않고 연필의 각도마저 90도로 유지하게 강요했던’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초등교사 자격으로는 교원양성소 3개월 코스 수료자 전부인 담임선생님이 5학년 민수네 반을 처음으로 맡아 좌충우돌하는 장면, 솟기 없는 민수를 지목해 웅변을 시키고, 달리기 시험에서 1등할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민수는 그의 지나친 관심을 버거워하는데, 뜻밖에도 입시박빙이나 자살 결심 등 삶의 고비 고비마다 가르침을 떠올린다.

담임에서 정진석 지주이자 인생의 멘토로 바뀐 그에게 매년 크리스마스카드

를 보내고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다.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그의 집이었다. 그리고 주례사를 들은 지 20여 년 후, 이번에는 민수가 그의 장남 주례를 맡게 된다.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한 그가 팔순잔치를 벌일 때, 민수는 유행가 ‘고향무정’을 불러드렸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민수의 어깨에 기대면 그는 호랑이에서 ‘순한 양’으로 변해 있었다.

작가는 “요즘 교실이 무너졌다는니,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니 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제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님, 담임을 인생의 스승으로 알고 존경하는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아직 우



를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강 교수는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정회원)로 등단했으며, 풍향학술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지역신문과 광주교통방송 라디오에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를 연재 혹은 방송 중에 있다.

강 교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및 옵부즈만 대표, 민주평화통일 중앙상임위원, 광주포럼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평단출판사,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도서, 2015년 베트남 언어로 출판), ‘14살에 처음 만나는 동양철학자들’(북맨토 출판사)을 포함한 철학도서 16권, ‘땅콩집 이야기’ 시리즈, ‘땅콩이’ 등 장편소설 5권이 있다. /김종민기자

윤영훈 시인, 첫 가사동화집 15년 만에 세상으로

시인이자 아동문학가로 활동 중인 윤영훈씨가 첫 동시집 ‘풀벌레 소리 시냇물 소리’를 낸지 15년 만에 첫 가사동화집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를 발간했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장과 전남시인협회장을 역임하고, 전남도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윤 시인은 그동안 향토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시 창작에 정열을 쏟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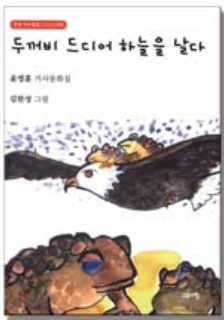


의 애뜻한 사랑을 윤율이 살아있는 언어

이번 가사동화집은 자연이 파괴되는 현장에 있는 두꺼비·비둘기의 아픔과 애완동물인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의 재미있는 세계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애뜻한 사랑을 윤율이 살아있는 언어

로 담아냈다. 특히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는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에서 선정한 동화로,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쓴 동화이기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어린이의 정서와 감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가사동화집은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 ▲점잖아, 정말 미안해 ▲비둘기의 꿈 ▲행복의 날개가 수록돼 있다. 윤 시인은 “새로운 가사동화가 어린이



윤영훈 지음/고요아침/1만3천원

‘두꺼비, 드디어 하늘을 날다’

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가사동화집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정겨울기자

李총리 추석연휴 ‘독서 키워드’는…불평등·기적·미래

‘20 vs 80의 사회’·‘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석 연휴 독서 리스트에는 어떤 책들이 올랐을까.

15일 이 총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번 연휴 기간에 읽은 책과 간단한 감상평이 올라와 있다.

이 총리는 먼저 ‘20 vs 80의 사회’를 소개했다.

영국 출신의 미국 사상가 리처드 리브스가 쓴 이 책은 불평등에 실제적 책임이 있는 상위 20%가 어떻게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 파고든다.

최상위 1%와 나머지 99%의 대결 구조로 보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위 20

%, 즉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책이다.

이 총리는 “상위 20%가 기회를 ‘사재기’하며 하위 80%와의 격차를 넓히고 그것을 세습하는, 그런 미국 사회를 진단하며 처방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고민하며 읽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이미 소개된 로버트 퍼트넘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 책”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아이들’은 빈부 격차가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추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이어진 독서 리스트는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이다.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쓴 이 책은 장기간 수집한 거시적·미시적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의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석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개척해야 할 분야,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총리는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적, 기적을 일군 감동과 저력, 기적을 망치는 내부의 적들,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하여”라며 “우리를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라고 감상평을 남겼다.

이 총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도



시리즈다.

이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갈등 해결, 평화와 국제정치, 지속적 성장과 변형, 지속가능한 민주복지 국가,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 책이 제시한 대한민국 6대 과제를 거론하며 “모두 만만찮은 과제다. 그러나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새로 나온 책



▲우먼 인 윈도 = 지난해 출간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장기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41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연기파 에이미 애덤스, 게리 올드먼 주연으로 영화도 내년 5월 개봉할 예정이다.

광장공포증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여주인공 애나. 향정신성 약물과 술, 이웃 훔쳐보기로 일상을 보내는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옆집을 훔쳐보는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애나의 말을 믿지 않고 경찰조차 살인이 없었다고 말한다.

살인 사건은 진짜일까, 아니면 약물이 만들어낸 환각일까. 정통 미스터리 스타일의 진수를 맞본다. 저자 A.J 핀은 이 작품으로 일약 세계적 작가로 떠올랐다. /비제·1만5천800원.



▲베트남 사상으로의 초대 = 김성범 지음.

국토 면적 70%가 산악지대인 베트남과 한국. 거대하게 소용돌이치는 중화(中華)라는 문명의 언저리에서 독자적 문화를 간직해왔다는 점에서도 두 나라는 닮은꼴이다. 따라서 베트남이라는 타자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 저서는 선사시대 구전설화로 전해지는 베트남 특유의 사유 기원에서 시작해 유불도(儒佛道) 외래사상의 수용과 극복의 과정,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배를 종식한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까지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속 깊이 이해하게 한다.

베트남사회과학원원 철학원 객원교수인 저자는 10여 년 동안 하노이에 머물면서 베트남 전역을 살살이 훑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연결로 구실을 해왔다. /푸른사상·2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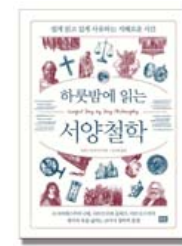


▲삼국지 생존법 = 안계환 지음.

동양인의 원초적 사고와 처세의 기본이 담긴 삼국지(三國志)는 서기 184년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에서 시작해 280년 오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90여 년의 역사를 다룬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제 인물 1천39명과 가상 인물 149명이 등장하는 대하드라마다.

저자는 삼국지의 핵심 내용을 빠지지 않게 실었고 도표와 지도, 그림도 넣어 이해와 재미를 더해준다. 소설 삼국지를 요약하고 각 인물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도록 정사 삼국지를 중심으로 시대를 살렸다.

오늘날로 찢을 때 제갈량이 남들이 가는 대기업 대신 유망 벤처 기업을 택한 독특한 이유였다면, 삼국지 최후의 승자인 조조에게서는 성공하는 창업자의 DNA가 발견된다. 유비로 상징되는 ‘인덕의 힘’은 관계형 리더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무발전소·1만8천원.



▲하룻밤에 읽는 서양철학 = 토마스 아 키나리 지음. 오근영 옮김.

“철학은 일상의 고민을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이다.” 저자는 시대를 수놓은 수많은 철학자와 문장들을 소개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이 모두 철학을 꺼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윤리적 주지주의’, ‘이데아론’, ‘범신론’, ‘경험론’ 등 모두 19가지 사색적 개념어로 얘기를 풀어나간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 그리스도, 토마스 아퀴나스 등 고대와 중세의 사상가에 이어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헤겔 등 근대 사상가, 그리고 키르케고르,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데리다, 듀이 등 현대 사상가까지 두루 망라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6천원.

동부 센트레빌 상가 매매 및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매매 - 6억5000만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